- 선진 지방의회 및 시설 시찰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

스위스 · 독일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9.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Chairs)

목 차

Ⅰ. 연 수 개 요 ····· 0

Ⅱ. 연 수 일 정 ····· 0

Ⅲ. 연 수 자 명 단 ····· 0

Ⅳ. 방문기관(시설)별 연수내용 ····· 0

1.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 0

2. 시프바우·풀스5·임바둑트(도시재생 현장) ····· 0

3.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 0

4. ZAUGG(제설업체) ····· 0

5.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 0

[참고] 스위스·독일 현지 정보 ····· 0

- 선진 지방의회 및 시설 시찰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

실무위원회 스위스·독일 국외연수 결과보고

Ⅰ 연 수 개 요

□ 목 적

○ 유럽 선진의회 및 시설 등을 시찰하여 지방자치제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 도모

□ 기 간 : 2018.12.26.(수) ~ 2019.01.01.(화) / 5박 7일

□ 연수지역 : 스위스(취리히, 글라루스, 에기윌),
독 일(프랑크푸르트)

□ 연 수 단 : 34명(위원장 15명, 시·도의회 17명, 협의회 2명)

□ 주요기관 방문 및 시설견학

국 가	기 관 및 시 설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블로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ZAUGG(제설업체) 취리히 시프바우(도시재생 현장)
독 일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 연수 주요내용

○ 스위스 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문화, 제설관리 등 선진 시스템 벤치마킹

○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 기업 지원방안을 위한 우수사례 기관 방문

○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Ⅱ 연수 일정

일 자	장 소	시 간	내 용	비 고
12.26.(수)	인 천 취리히	11:25 18:40	인천국제공항 출발 스위스 취리히 공항 도착	
12.27.(목)	글라루스 취리히	10:00 15:00	**글라루스 의회 방문** **시프바우, 풀스, 암바둑트 방문(도시재생 현장)**	
12.28.(금)	취리히 에기윌	10:00 15:00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ZAUGG(제설업체) 방문**	
12.30.(일)	바젤 프랑크푸르트	10:00	**스위스 → 독일(프랑크푸르트) 이동**	
12.31.(월) 2019.1.1.(화)	프랑크푸르트 인 천	10:00 19:30 13:55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공항 도착	

Ⅲ 연 수 자 명 단

□ 인　　원 : 34명(위원장 15, 시도의회 17, 협의회 2)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성 명	비 고
서 울	위 원 장	서윤기	5급	박태헌	
부 산	〃	노기섭	7급	박민규	
대 구	〃	이만규	4급	박재붕	
인 천	〃	노태손	-	-	
광 주	〃	이경호	7급	고윤호	
대 전	〃	남진근	7급	정헌학	
울 산	〃	안도영	4급	신정성	
			6급	박소정	
세 종	〃	이재현	7급	김승환	
경 기	〃	진용복	5급	한재홍	
			7급	윤종훈	
강 원	〃	원태경	5급	전혁찬	
충 북	〃	김영주	6급	전상권	
			7급	이충민	
충 남	〃	김형도	7급	이복남	
전 북	〃	김대중	5급	전웅용	
			7급	김윤경	
전 남	〃	서동욱	-	-	
경 북	〃	박용선	7급	김재일	
협의회			5급	이학규	
			6급	김효정	

Ⅳ 방문기관(시설)별 연수내용

1.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스위스 / 글라루스	글라루스 의회
명 칭	**Glarus parliament**
소 재 지	Limmatquai 55, 8001 Zürich, 스위스
연 락 처	+41 43 259 68 11
홈페이지	https://www.gl.ch/
방문목적	직접 민주주의 운영 및 이점 설명 청취

기관 소개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에서 유래된 행사로, 시민들은 시청사와 법정의 야외에 함께 모여 투표할 권리와 법률과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란츠게마인데는 1294년 열렸다. 1년에 한 번, 몇천 명에 이르는 투표자들이 야외 의회 즉 란츠 게마인데를 위하여 야외에 모인다. 그들은 주 정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회 관할 구역 내의 주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배치한다. 란츠게마인데는 덕망을 지닌 연배가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특정한 전통과 형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27.(목) 10:00

○ 면 담

- Landammann Dr. Andrea Bettiga(주지사)
- Landratspräsident-Stv. Dr. Peter Rothlin(주의회 부의장)
- Ratsschreiber lic.iur. Hansjörg Dürst(주의회 운영위원장 겸 주 정부서기)
- Fridolin Hauser(전 시장)

○ 내 용 : 직접 민주주의 운영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주요 설명 내용

▸ 스위스 26개의 칸톤(지방자치단체) 중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두 곳이며 그중 방문기관인 글라루스에서는 1년에 한번 5월 첫째주 일요일에 투표자들이 야외에 모여 주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의제를 거수로 표결하는 야외의회 "란츠 게마인데"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스위스 대부분의 칸톤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글라루스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일년에 한번,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활 정치의 장'으로 평가받는 800년 역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임

▸ 주민들은 이곳에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대중교통 요금 문제, 예산안 심의, 세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며, 작게는 마을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문제까지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내림

▸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함. 주민 4만여명중 6천명정도 투표에 참가함. 60명 의원중 10명이 찬성하면 안건 상정. 의원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하며 봉사직 성격을 가짐.

▸ 보통 연간 10건 정도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안건마다 10여명 이내의 찬반의견 표명후 의결, 전에 의결했던 간접흡연 규제 법안 제정의 경우 주민투표 거치는 등 2년이 소요되었음

▸ 질의내용

1.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함. 게마인데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 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60명의 칸톤의원 가운데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게마인데를 통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글라루스 인구가 3만 8천명이고, 이 가운데 유권자 수는 약 2만여명 정도라고 하는데, 게마인데가 성립하기 위한 최저 유권자 수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 게마인데 성립을 위한 최저 참가자 제한은 없다.
3. 매년 게마인데에 상정되는 안건이 약 10여건 정도라고 들었다.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 안건에 대해 무제한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찬반의견 표명을 위한 자유토론 형식은?
   - 각 안건마다 10여명 내외의 찬반의견을 듣는다. 앞서 이미 제기된 의견과 같은 의견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재량으로 토론자 수를 조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 소개된 게마인데 영상을 보니 경찰외에 군인이 동원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데, 군대가 게마인데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경찰력만으로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군대가 함께 동원되고 있다. 참고로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2년의 시간동안 연속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연령(18세~34세)에 도달한 병역의무자의 경우 18주에서 21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에 매년 19일씩 6회 소집해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게마인데에 동원된 군인들도 본인의 복무시기가 겹치는 경우에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다.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스위스는 4개의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고, 종교도 구교와 신교로 양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국민 통합을 잘 이뤄내는 국가 중 하나인 비결은 바로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다시 말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있다고 생각됨

▸ '란츠게마인데'라는 주민총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서로의 의사를 경청하고 그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말 그대로의 '자치'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정치적 유산을 계속 유지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만, 인구 4만명 정도의 소규모 지자체라는 적용상의 한계도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글라루스의회처럼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현행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거의 모든 나라가 간접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의제에 익숙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 각종 옴부즈만, 시민위원회, 시민보팅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도 헌법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는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에 커다란 변혁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곧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연결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예산이 많아지고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각종 사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해야할 일도 당연히 많아지고 중요해 진다는 것을 말한다.

▸ 이런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우리 광역의회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과 역량 강화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현장 사진


Landsat Glarus &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Steering Chairs
글라루스 의회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7. DEC. 2018.
Landsat Glarus & Associ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ouncil Steering Chairs
글라루스 의회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7. DEC.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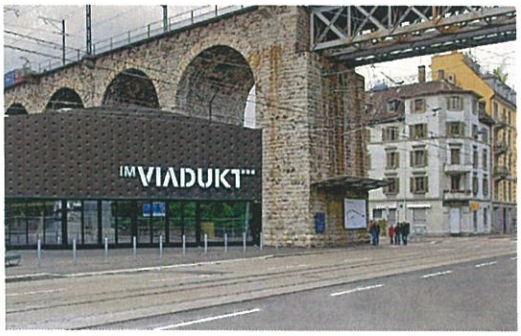
2. 도시재생 사례 현장견학 (취리히 시프바우 · 풀스5 · 임바둑트)

스위스 취리히 도시재생 성공사례 (시프바우 & 풀스5 & 임비아둑트)









현장 소개

- 아름다운 스위스 취리히에도 산업 발전의 이면이 드러난 어두운 장소가 있다. 취리히에는 30여년 전만 해도 매연을 내뿜는 공장지대가 있었다.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 공장, 조선소, 제철소 같은 각종 중공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약 139만㎡(42만평) 규모의 전형적인 도시 외곽 공업지대였다. 이곳은 스위스 서부에 있어 '취리히 웨스트'라고 불렸는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자 핵심 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했다. 1990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다. 취리히 웨스트는 낡고 우중충한 공장 건물, 허름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슬럼으로 전락해 30년 넘게 방치됐다. 취리히 시는 이 버려진 공장지대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했다.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공장지대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시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 취리히시는 이곳을 깡그리 밀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닌, 공장지대에 있던 다양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공장지대는 재생에 성공했다. 취리히 웨스트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스위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취리히 웨스트에는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가 있었다. 영업을 중단한 이 조선소 건물에는 극장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다. 바로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Schifbau)'라는 곳이다. 건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노출된 배관 파이프나 녹슨 철근 같은 요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곳에는 저녁이면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가족이나 연인들이 멋진 식사와 술, 공연을 즐기러 찾아오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일부러 남겨 놓은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이 높아 탁 트인 공장 특유의 넓은 실내가 나타난다. 고급 프렌치레스토랑 '라살'이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이 식당은 취리히 사람들도 인정하는 유명 레스토랑이다.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기둥 등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프바우 바로 옆에 있는 복합공간 '풀스5(Puls5)'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한 이 건물은 외관을 완전히 새로 고쳐 얼핏 보면 갓 지은 쇼핑센터처럼 보인다. 각종 고급 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입점해 있고,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주로 하는 전시공간을 배치했다. 1층의 레스토랑 '그뉘세라이'는 이곳이 옛 제철소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로 교각 아래에 2009년 새로 만들어진 '임비아둑트(Im Viadukt)'라는 장터는 인기있는 쇼핑 장소다. 아치형 철도 교각에는 세련된 그래픽디자인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가게 수만 해도 50여 개나 된다. 테마가 있는 상점거리와 비교했을 때 원래 용도만 다를 뿐이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교각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일대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것도 임비아둑트의 큰 매력이다.

견학 개요

○ 일　　시 : 2018. 12. 27.(목) 15:00

○ 안　　내 : Zurich West Tour Manager, Ms. Elisabeth Brem

○ 내　　용 : 스위스 취리히 도시재생 성공사례 설명

○ 주요 설명내용

- ▸ 시프바우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임. 취리히 웨스트에는 조선소가 있던 곳이었으나 영업을 중단한 조선소 건물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으로 재개발하였음.
- ▸ 그 외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비누고앙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공장이전 등으로 방치된 슬럼지역들이 도시재생 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였음.
- ▸ 예전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바우는 '샤우슈필하우스'라는 공연전용 극장으로, 제철회사 주조공장이던 곳은 '풀스5' 라고하는 식당과 전시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옛 양조장은 미술전시장으로 조성함. 건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해서 노출된 배관파이프나 녹슨 철근 같은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음
- ▸ 입주한 상점들 대부분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수익성도 괜찮다고 생각함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 도심내 퇴락한 제조업 지역을 과거와 같은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원형을 보전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재생한 사례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짐.
- ▸ 복합공간 플스5는 출입문 앞에 갈때까지 재생건물인지 알아채지 못하다가 내부에 들어가서야 공장을 재활용한 건물임을 알았을 정도로 외관이 뛰어났다.
- ▸ 철로 교각아래 '09년 새로 만들어진 임비아둑트는 인기 있는 쇼핑장소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 ▸ 배관파이프와 노출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자칫 흉물스러울 수 있는 옛 조선소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든 시프바우, 플스5, 임비아둑트 등은 지방인구 감소, 빈집 증가 등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대두된 우리나라도 기존의 낡은 것을 무조건 허물지 않고, 특화지구 사업, 차별성 있는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시·공간적, 문화적 특색을 잘 살려 조화롭게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중심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완성해 가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임

주요현장 사진



3.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스위스 / 취리히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협회
명 칭	CRYPTO VALLEY LABS
소 재 지	16, Dammstrasse, 6300 Zug, 스위스
연 락 처	+41 41 725 02 00/ railcenter@gornergrat.ch
홈페이지	https://crypto-valley-labs.business.site/
방문목적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Crypto Valley

기관 소개

- 2017년 9월에 설립된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협회는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제공하는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보험 플랫폼, 자산관리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사업 등을 포함 100명 이상의 블록체인 관계자 입주하여 있다. 마케팅, 법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업무 및 사무실 공간 임대의 활동을 한다.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28.(금) 10:00

○ 면 담 : Crypto Valley Zug CEO: Mr. Ruch

○ 내 용 :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 유치, 지원 등

○ 주요 면담내용

- ▸ 스위스 zug는 2013년부터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크립토밸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0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zug지역에 약 400여 업체가 크립토밸리 LAB을 형성하고 있음. 2013년 이더리움과 모네타스가 주크에 회사를 세울 때 스위스 정부의 지원과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인큐베이션,자금지원 등으로 이 도시는 블록체인의 성지가 될 수 있었음.
- ▸ 이곳에서는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합법이고, 블록체인 기업 사업자에게 정부가 공간을 대여해준다. 월 20만원만 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함. 이곳 랩스는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인 크립토 밸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서 크립토 밸리가 자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스위스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심을 가져준 덕분임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 기업이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받아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해 한국, 미국, 싱가폴, 중국은 금지하였으나 스위스에서는 규제가 한국, 중국처럼 강하지 않아 한국,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앞 다투어 스위스로 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스위스 주크(zug) 주의 블록체인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켰다는 점은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실체없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블록체인기술의 본질보다는 거기에서 파생된 가상화폐의 거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서버에 기반하지 않은 현행 최고의 보안기술이며, 각종 신분증(ID)분야, 과태료, 세금납부와 같은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규제와 룰도 필요하지만, 4차산업 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스위스처럼 연구인력 확보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 기술보급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주요현장 사진



4. 스위스 제설업체 ZAUGG

스위스 / 에기윌	스위스 제설 업체 ZAUGG
명 칭	ZAUGG AG EGGIWIL
소 재 지	ZAUGG AG EGGIWIL Holzmatt 651 b CH-3537 Eggiwil
연 락 처	+41 34 491 81 11 / info@zaugg.swiss
홈페이지	https://www.zaugg-ag.ch/
방문목적	스위스 제설 업체 운영 시스템 및 장비관리 설명 청취





기관 소개

- ZAUGG AG EGGIWIL은 슬로프의 눈, 도로, 철도, 공항 및 민간 도로에서 제거 또는 처리를 위한 고품질 기술 장비의 개발과 장비 제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특수 장비로 완벽한 제설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업체이다. ZAUGG의 제품은 탁월한 스위스 품질, 작동의 편리성, 작업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오랜 서비스 수명 및 고효율로 잘 알려져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요구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해왔으며 현재 약 1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28.(금) 15:00

○ 면 담 : Zaugg AG Egiwill CEO, Mr. Hans Greter

○ 내 용 : 스위스 제설 업체 운영 시스템 및 장비관리 등

○ 주요 내용

▸ 자우그는 유럽에서 인정받는 제설장비 전문 생산 강소기업이며, 고객이 원하는 차량에 제설관련 장비를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스키장, 골프장은 물론이고, 주요 도로와 공항 등 다양한 상황에 만즌 제설장비를 맞춤 생산하고 있음.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ZAUGG Pipemonster가 장착된 수퍼 파이프 스노우보드장을 만든는데에도 일조함.

▸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요구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Eggiwil 및 Schüpbach의 작은마을에서 약 13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느낀점 또는 시사점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있으며, 알프스 산맥과 폭설 등의 여건으로 제설업이 발달된 국가로 제설장비 역시 전문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갖춤.

▸제조공장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사장과 직원간의 대화에 격식이 없어 직급간 권위없는 모습에 스위스 특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130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기술 장비 분야의 자부심을 가지며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업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환경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국내 도로제설은 대부분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로 도로, 자동차 그리고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우그(ZAUGG)사의 제설장비는 대부분 눈을 쓸어올려 길 밖으로 뿜어내는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주요현장 사진



5. 독일 올드 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독일 / 프랑크푸르트	올드 타이머 자동차거래소
명 칭	OLD TIMER
소 재 지	Zentrum Rheinhessen Zur Galeria 1 55459 Grolsheim
연 락 처	+49 6727 89718-100
홈페이지	https://www.classicbid.de/de/
방문목적	문화와 역사를 같이 판매해야 하는 지식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자동차와 업체 탐방



기관 소개

- 총 47개 업체가 조합형태로 컨소시엄 형성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 올드 타이머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 부품 조달업체, 유지 보수 업체, 도색업체,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판매업체까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차종은 일반 세단에서 스포츠카까지이며 람보르기니처럼 희소성이 강한 차량은 최근 생산되는 신종차량이라도 관리보수를 하며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있다.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31.(월) 10:00

○ 면 담 : Old Timer CEO, MR.Herr Johl

○ 내 용 : 문화와 역사가 함축된 비즈니스 모델 자동차 거래 등

○ 주요 내용

- ▸ 9,000㎡의 면적의 경매 및 전시장과 고전자동차 등 약 150개 정기적 차량 전시
- ▸ 47개 업체가 조합형태로 컨소시업 형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로 법률, 부품, 유지보수 도색업체 등이 상주해 있으며, 고가의 명품 올드카에 각종 스토리를 담아 자동차의 역사와 감성을 함께 거래하고 있다.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문화와 역사를 같이 판매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구축하여 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퇴물 취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클래식한 자동차를 하나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로 부여하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명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독일 자동차산업의 내수 명맥을 이어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 다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역사등에 있어 수평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중고자동차 산업의 선진화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 특히 불신을 받고 있는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신뢰 구축이 첫 걸음이 될 수 있음.

주요현장 사진



참고 현지 정보 (스위스, 독일)

□ 스위스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예 등 스위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1. 개 요

수 도	베른 (Bern)
대통령	디디에 부르크할터 (Didier Burkhalter)
면 적	41,284㎢
인 구	약 8,544,000명 세계 98위 (2018 기준)
민 족	독일인(German), 프랑스인(French), 이태리인(Italian)
언 어	독일어(German), 불어(French), 이태리어(Italian), 로망슈어(Romansh Language)
종 교	카톨릭(48%), 기독교(44%), 기타(8%)
화 폐	프랑(CHF)
전 기	230V 50Hz
시 차	한국보다 8시간 느림
공 휴 일	1월 1일 : 신년 3월 30일 : 성 금요일 4월 1일 : 부활절 4월 2일 : 부활절 다음 월요일 5월 1일 : 노동절 8월 1일 : 건국기념일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2018년 기준)

2. 지 도



3. 역 사

B.C. 5세기경 ~ 현대

B.C. 5세기경 켈트족의 한 갈래인 헬베티아족이 스위스에 정착했다. 이들은 B.C. 1세기 중반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에 대패한 뒤로 급속히 로마화 됐다. 5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 서부 지역에 부르군트족, 동부 지역에 알라만 족이 정착했다. 부르군트족은 라틴화 되었고 알라만 족은 게르만 색채를 유지하여 언어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중세에 와서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배출됨에 따라 스위스의 자치권은 위축되었다.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현재의 수도 베른에 모여 자치 보존을 위해 영구 동맹을 맺은 게 스위스 연방의 기원이며, 이 동맹에 가담하는 주가 늘어났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1499년 스위스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고 바젤 조약에 따라 스위스는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영구중립국이 되었고, 그 후 파리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세기에는 스위스 최초로 중앙 정부가 들어섰지만, 힘은 여전히 각 주의 정부보다 약하다. 스위스에서는 1971년까지도 여성에 대한 투표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1971년에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4. 종 교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정해진 국교가 없으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는 그리스도교인이며 그중에서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혁교회(Reformed Church) 신도가 가장 많다. 스위스 건설의 배경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로마 가톨릭 신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주로 중부와 중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스위스 출신의 29세 이상 로마 가톨릭교회 남성 신자로만 구성되는 스위스 근위대는 로마 교황청에서 아주 유명하다.
16세기 울리히 츠빙글리와 장 칼뱅 등의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개신교도 스위스 교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 개신교 종파가 개혁교회(Reformed)로 통합되었으며, 국민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개혁교회 신자이다. 개신교는 주로 서부와 북서부 지역에 많지만, 언어의 경우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소수의 다른 개신교 종파 신도도 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제외하면 유대교 신도가 가장 많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슬람교와 동방정교회 신도가 더 많다. 2009년 11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슬람교 첨탑(미나렛)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기존에 건설된 이슬람교 첨탑은 제외)이 전체 유권자 찬성 57.5%로 가결되어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5. 음 식

문화

스위스는 지형의 특성상 사방을 서로 다른 국가와 접하고 있어서, 지방별로 접한 국가의 요리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쓰는 지역에 따라 음식문화가 다르며 이름도 제각각이다.
스위스의 요리에는 항상 치즈와 초콜릿이 따라온다. 에멘탈 치즈, 바슈랭 치즈, 아펜젤러 치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치즈이다. 가장 유명한 치즈 요리로는 퐁듀와 라클레테가 있다. 둘 다 지방의 요리이지만 지금은 스위스 치즈 협회가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감자를 곁들여 만든 뢰스티(독일어: Rösti)도 인기 있는 요리다. 원래 아침 식사용 음식이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때나 먹는다. 저녁 식사로는 버터나 잼을 바른 빵을 먹기도 하며 그냥 치즈와 빵으로도 자주 식사를 해결한다.
타르트와 치즈 베이컨의 일종인 키쉬(Quiche)도 스위스의 전통 음식이다. 타르트는 사과 시럽에서 양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토핑을 올려 만든다.
리베라(Rivella)는 탄산을 곁들인 스위스의 음료로서 스위스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이다. 사과 주스도 즐기는데 사과주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와인도 대중적이다. 많은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언어권마다 선호하는 종류가 다르다. 리즐링과 실바너 종을 교배한 백포도주는 독일어권 스위스 지역에서 생산되며 샤살라(Chasselas)는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만든다. 적포도주인 피노 누아(Pinot Noir)는 두 언어권 모두 즐겨 찾는다. 이탈리아어권에서는 메를로가 인기 있다.
스위스에서 맥주와 와인은 16살 이상이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증류된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은 18세 이상만 살 수 있다. 초콜릿 음료인 오보 말 타 인(Ovomaltine)은 미국에서 오발 타인(Ovaltine)이라고 부르는데 스위스에서 유래한 것이며 계속해서 인기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음료 이외에도 빵 위에 발라서 먹는 것도 흔하다.

대표 음식

1) 퐁뒤

스위스의 대표적인 요리로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긴 꼬챙이 끝에 음식을 끼워 녹인 치즈나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다. 18세기 초 알프스의 사냥꾼들이 사냥 중 모닥불에 치즈를 녹여 마른 빵을 부드럽게 적셔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
퐁뒤는 크게 치즈 퐁뒤와 비프 퐁뒤로 나뉜다. 비프 퐁뒤 중에서도 특히 차이니스 퐁뒤는 우리나라의 샤부샤부와 유사한 음식으로, 샐러드 오일에 양고기와 쇠고기를 데쳐서 와인과 곁들여 먹는다.
녹인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과일이나 과자를 찍어 먹는 디저트식 스위트 퐁뒤도 대중적이다.

2) 라클레트

스위스 발레 지방에서 시작된 요리로, 산 오두막의 목동들이 잘라낸 치즈를 난롯불에 쬐어 절단면이 녹으려 할 때 나이프로 긁어먹은 데서 유래한다. 지방분이 많은 라클레트 치즈의 절단면을 녹인 다음, 녹은 절단면을 긁어내어 찐 감자 위에 얹어 먹는 치즈 요리다. 프랑스에서도 생산되는데, 스위스의 라클레트가 풍미가 더 강하고 진하다. 맛은 부드럽고 시큼하며, 호두 향이 난다.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요리다.

3) 베르너 플라테 & 뢰스티

베른 지역의 향토 음식이다. 플라테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를 채소와 함께 한 접시에 담아낸 것을 말한다. 뢰스티는 얇게 썬 감자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소시지나 게슈네첼테스(스튜)를 곁들여 먹는 요리다.

4) 오블뢰

오블뢰는 송어를 식초나 향료를 넣고 삶은 요리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프랑스어권에서 즐겨 먹는다.

□ 독 일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중앙 유럽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으로 덴마크와 북해, 발트 해, 동쪽으로 폴란드와 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독일은 오늘날 유럽 최강대국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세계 5위이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세계 2위이다.

1. 개 요

수 도	베를린 (Berlin)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 (Joachim Gauck)
면 적	356,885㎢
인 구	82,410,000명(2006년 4월 기준)
민 족	게르만족(99%)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화 폐	유로화 (EUR)
전 기	230V 50Hz
시 차	한국보다 8시간 느림 (서머타임기간 7시간 느림)
공 휴 일	1월 1일 신년 5월 1일 노동절 10월 3일 통일기념일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2. 지 도



3. 역 사

독일제국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사상 최초로 독일의 통일을 이룬 근대 국가가 되었는데, 이 가운데 프로이센 왕국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무찌르면서 1871년 1월 18일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건국이 선포되었다. 프로이센의 호엔촐레른 왕가가 독일 제국 전체의 황제를 겸임했으며,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외의 독일의 모든 지방을 통일하였다. 1884년부터 독일은 유럽 바깥 지역에 식민지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통일 이후 그륀더차이트 시대에 독일 제국은 수상 비스마르크의 지도로 타 열강들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중 삼중의 비밀 외교로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 식민지 쟁탈 경쟁에도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독일은 "식민지 대신 화학을"이라는 슬로건처럼 뒤늦게 산업 혁명을 추진하여 산업 국가로 거듭났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은 내부 모순 및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 내부 문제는 노동조합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활발한 운동으로 표면화되었다. 뒤이어 황제로 등극한 빌헬름 2세는 유럽의 다른 열강처럼 제국주의 정책을 내세워 이웃 나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이전에 독일이 맺고 있던 대부분의 동맹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동맹에서는 독일이 빠졌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과 영국-프랑스 협상을 맺고 러시아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확보하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와 관계를 맺은 것 외에 독일은 점차 고립되었다.

독일은 자국 영내를 벗어나 유럽 열강들이 벌이고 있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를 나눠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독일은 독일령 동아프리카, 독일령 남서부 아프리카, 토골란트, 카메룬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영토를 확보하였다. 아프리카 쟁탈전으로 열강 사이에 긴장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살해당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동맹국 측에 섰던 독일은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이 전쟁에서 연합국에 패배하였다. 전쟁 중 독일군 전사자는 2백만 명에 이른다. 1918년 11월에 독일 혁명이 일어나자 빌헬름 2세와 독일의 모든 제후가 폐위되었다. 그해 11월 11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끝났으며, 독일은 1919년 6월에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전통적인 전후 외교 방식과 달리 당시 협상에서는 패전국인 동맹국이 배제되었다.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이 다른 수단을 통한 치욕스러운 전쟁의 연속으로 여겨졌으며, 조약에서 규정한 가혹한 조건 때문에 이후 나치즘이 발흥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분단과 재통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독일은 오데르-나이세 선 동쪽 영토를 잃고 옛 동부 영토와 다른 지역에서 독일인 1,50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여러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다. 남은 영토와 베를린은 연합국이 4개 군사 점령 지구로 분할하였다. 1949년 5월 23일에 독일 영토 가운데 프랑스, 영국, 미국이 통제하는 서방측 지구가 통합하여 독일 연방 공화국이 들어섰으며, 같은 해 10월 7일에 소련측 지구는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두 나라를 각각 '서독'과 '동독'으로 칭하였으며, 베를린 역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갈라졌다.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삼았으며, 서독의 경우는 본이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서독은 두 나라로 갈라진 당시 상태가 언젠가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므로 수도 본의 지위를 임시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서독은 "사회 시장 경제" 체제와 더불어 연방제 의회 공화국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 1950년대 초부터 서독은 장기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1955년에 서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동독은 동구권에 속한 나라로 바르샤바 조약과 붉은 군대 점령군을 통하여 소련의 정치/군사적 통제를 받았다. 동독은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긴 하였으나 권력은 공산주의 세력인 독일 통일사회당(SED)의 정치국원들이 독점하였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대한 비밀 정보 기관인 슈타지와 그 밖의 여러 통일사회당 하부 조직을 통해 사회 전반을 통제하였다. 동독은 소련식 계획 경제 체제를 세웠으나 나중에는 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에 가입하였다. 동독인이 서독으로 월경하지 못하게끔 막고자 1961년에 건설한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1970년대 초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데, 이 정책에는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영토를 잃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974년 FIFA 월드컵에서 서독과 동독이 동반 진출한 바도 있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철의 장막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8월 23일에 국경을 개방하자 9월 11일에 동독인 수천 명이 헝가리 국경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이 사건이 동독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동독 당국은 11월에 뜻밖에도 국경 제한을 해제하여 동독 시민들이 서방을 다녀갔다. 당초 동독은 자신이 국가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게끔 통제 정도만 조절하기 위한 의도로 국경 개방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동독에서 벤데 개혁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1년 뒤인 1990년 9월 12일에 2+4 조약으로 귀결되어 전후 당시 독일을 점령하던 4개국은 항복 문서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폐기하고 독일에 완전한 주권을 돌려주었다. 덕분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재통일을 이루었으며, 옛 동독에서 새로이 편성된 다섯 주가 독일 연방 공화국에 귀속되었다.

4. 종 교

독일의 기독교는 프랑크 왕국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본격 도입이 되어서 전파되었고 신성로마제국초기까지 크게 융성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논박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된 이후에 피비린내나는 종교전쟁인 30년전쟁의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간의 분쟁은 종교자유가 선포됨으로써 극복되었다 . 독일 국민의 60%가량이 기독교(로마 가톨릭과 루터교회)를 신앙하고, 일부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타 신흥 종교를 믿는다. 독일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간 30년전쟁의 영향으로 현재는 전체 국민 중, 로마 가톨릭 30.7%, 개신교 32.3%(2008년 12월31일 기준)를 차지한다. 가톨릭은 바이에른을 중심으로 남부 독일에 많고, 개신교는 북부 독일에 압도적이다.

5. 음 식

문화

독일의 음식 문화는 실용적인 독일의 국민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리 과정은 단순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은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예로부터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로,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맛의 차이가 뚜렷하다. 동부 지역은 강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며,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청어와 같은 생선을 많이 먹는다. 라인 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일 요리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표음식

1) 소시지



소시지와 햄이 발달한 독일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정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독일어로 부르스트라고 한다. 재료는 돼지고기 외에도 간, 소의 혀 등을 쓰며,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크기도 어른 팔뚝만 한 것에서부터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종류가 많고 다양한 이유는 지역마다 강한 지방색을 갖고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는 함부르크(Hamburg)에서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hamburger)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2) 맥주



'맥주의 나라'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일 뿐만 아니라 5,000종 이상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이다.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이라기보다 일상적인 음료에 가까울 정도여서, 맥주는 액체 빵이라고 부를 만큼 매우 소중히 여겨진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독일인 한 사람이 마신 맥주는 평균 127.4ℓ로, 하루에 350㎖정도를 마셨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 각 지방마다 나름의 특색을 갖춘 독특한 맥주를 만날 수 있다. 맥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와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밝은 색의 쾰쉬 등이다. 독일의 맥주는 순수성으로도 유명하다. 1516년 빌헬름 4세는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것은 맥주에 홉·엿기름·이스트·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네 가지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3) 슈바인학세



돼지를 의미하는 슈바인(Schwein)과 동물의 발목 위 관절을 의미하는 학세(Haxe)의 합성어로, 돼지의 발목 윗부분을 구워 요리한 독일 전통 음식이다. 모양은 우리나라의 족발과 비슷하지만, 돼지의 정강이 부분을 삶은 후 이를 다시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식감은 슈바인스학세가 더 부드럽고 바삭하다. 주로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자우어크라우트(Sauerkraut)와 으깬 감자 등을 곁들여 먹는다. 맥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독일의 맥주 축제 등에 빠지지 않는 메뉴이며, 특히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에서 즐겨 먹는다.